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의 연습전략 분석

배 수 영*

이 연구는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의 연습태도와 연습전략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3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n=123)이며, 코스트카(Kostka, 2002)의 연습태도 파악을 위한 설문지와 위군과 킬루니 세르(Uygun and Kilincer, 2017)가 개발한 ‘악기연습 시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들은 ‘음악성’과 ‘테크닉’을 연습에서 익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간주한다. 둘째, 학생들은 연습전략 중 시연 전략(m=3.47)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연계-조직 전략(m=3.42)과 이해 점검 전략(m=3.41)을 사용하였으며, 정교화 전략(m=2.87)을 가장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셋째, 연습시간과 연습에 대한 인식에 따라 연습전략 사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p<.05$), 레슨 받은 기간과 레슨계획의 유무에 따라라도 학생들의 연습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연습전략, 피아노 교수법, 음악교육

차 례

- | | |
|--------------|--------------|
| I. 서론 | |
| II. 이론적 배경 | |
| 1. 학습전략 | 2. 음악실기 학습전략 |
| III. 연구방법 | |
| 1. 연구대상 및 절차 | 2. 연구도구 |
| 3. 자료분석 | |
| IV. 결과 | |
| V. 논의 및 결론 | |
| 참고문헌 | |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I. 서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주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특히 주 1회 레슨을 받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연습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연습을 관찰한 배리(Barry, 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레슨에서 배운 전략을 그대로 투사하여 연습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레슨에서 배운 내용을 개인 연습에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연습 전략 또한 레슨에서 선생님이 시연해준 것을 대부분 사용하며 선생님이 시연해주지 않은 연습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Bathgate, Sims-Knight, & Schunn, 2012). 하지만, 선생님들은 레슨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습전략을 제시하거나 연습방법을 지도하는 것에는 소홀하기 때문에(배수영, 2016; Kostka, 2002), 학생들은 이러한 레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기 어렵다(Bathgate, Sims-Knight, & Schunn, 2012).

연습은 목표를 설정하고(Locke and Bryan, 1965), 연습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며(Barry, 1992; DeNicola, 1990), 연습내용에 맞는 연습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Weinstein and Mayer, 1986). 전문 연주자들은 필요한 경우 악곡을 세분화하여 연습하고, 부분 연습이 필요한 경우 악보의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으로 연습한다고 한다(Milkaszewski, 1989). 또한 악보에 메모를 하거나 실수가 있을 시 이를 즉시 해결하며, 목표하는 악절을 거의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실수할 것 같은 부분 앞에서 멈추어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미리 해결 하는 등 다양한 연습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Duke et al, 2009). 따라서 학생들의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연습에서 연습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군과 킬루니세르(Uygun and Kılınçer, 2017)는 음악실기 연습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 전략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 실기 연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5가지 연습 전략 범주는 주의 전략(attention strategies), 리허설 전략(rehearsal strategies), 정교화 전략(elaboration strategies), 연계-조직 전략(articulation-organization strategies) 그리고 이해 점검 전략(comprehension monitoring strategies)으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연습 전략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이 연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코스트카(Kostka, 2002)와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 척도를 바탕으로 연습태도와 연습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연습에서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습지도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전반적인 연습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은 주의, 시연, 정교화, 연계-조직, 이해 점검 연습전략을 사용하는가?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하는가?

셋째, 레슨 받은 기간, 연습시간, 연습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연습계획 유무와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함의 유무에 따라 연습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만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전공에 따른 차이는 파악할 수 없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습 전략

학습 전략은 다양한 교육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었다. 메이어(Mayer, 1988)는 학습 전략을 학습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기위한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가네와 드리스콜(Gagné and Driscoll, 1988)은 학습 전략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와인스타인과 메이어(Weinstein and Mayer, 1986)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학습 전략이란 학습 과정에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이라고 정의하였다.

라이딩과 레이너(Riding and Rayner, 1998)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학

습에 필요한 인지 유형에 부적합한 학습 전략을 개발하나, 전략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점차 적합한 학습 전략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과제에 따라 필요한 학습 전략이 다르며, 다양한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학자들은 다양한 학습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학습전략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와인스타인과 메이어(1986)는 학습 전략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8개의 범주에는 기초적인 학습과제를 위한 리허설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 전략, 그리고 복잡한 학습 과제를 위한 리허설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 전략, 그리고 감성 전략과 동기 전략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가네와 드리스콜(1988)은 학습 전략을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는 주의 전략(attention strategies), 단기 기억 개발 전략(short-term memory development strategies), 약호화 강화 전략(encoding enhancement strategies), 파지 강화 전략(retention enhancement strategies), 그리고 모니터링 지침 전략(monitoring-guiding strategies)이다.

2. 음악실기 학습 전략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는 와인스타인과 메이어(1986)의 학습전략 분류와 가네와 드리스콜(1988)에 의해 개발 된 학습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음악실기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연습전략을 분류하였다. 이는 주의 전략, 리허설 전략, 정교화 전략, 연계-조직 전략, 그리고 이해 점검 전략으로, 다음은 각 전략에 대한 설명과 음악실기 학습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략한 예시이다.

1) 주의 전략(Attention strategies)

학습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의(attention)란 수많은 정보 중에 감각체계가 일부를 여과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이 정의에 따르면, “많은 정보 중에서 그 순간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정보”가 우리의 뇌에 입력되는 것이다. 주의를 넓은 의미로 인지적 사회화로(Matlin, 1989), 필요한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도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학습 자료에 표시하는 것은 주의전략 방법의 하나로서 학습자가 인지적 활동에 집중하게 한다. 음악실기 학습과 연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의집중 전략의 예로는 음악의 음색과 분위기가 변화하는 곳, 박자 혹은 박자가 변화하는 곳, 빠르기 표시나 빠르기가 변화하는 곳, 다이내믹이나 다이내믹이 변화하는 곳을 악보에 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려운 부분을 표시하거나 장식음 또는 장식음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 지 설명해놓은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2) 시연 전략(Rehearsal strategies)

시연(rehearsal)이란 “정보가 제시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어떤 정보가 단기 기억에 더 많이 시연될수록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와인스타인과 메이어(1986)에 의하면, 시연의 목적은 장기 기억에 저장할 정보를 선택하고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결정한 후 인지적 시연(cognitive rehearsal)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시연 전략은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학습에 아주 효과적이다. 하지만 장기 기억 속으로 정보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관 지어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재조직하는 정교화된 시연 전략(elaborated rehearsal)”을 사용해야만 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음악실기 학습과 연습에서 적용할 수 있는 리허설 전략의 예로는 곡 전체나 어려운 부분, 혹은 실수가 이루어진 부분을 쉽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혹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인지적 리허설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3) 정교화 전략(Elaboration strategies)

정교화(elaboration)란 “어떤 정보에 조작을 가하여 정보가 갖는 의미의 깊이와 폭을 더욱 심화, 확장시키는 사고 전략”을 말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관련지음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보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Wernke et al., 2011). 따라서 정교화 전략은 기존의 정보 혹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교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Conford, 2002).

음악실기 학습과 연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교화 전략의 예로는 이전에 배웠

던 곡의 음색, 조성, 리듬, 테크닉과 새로운 곡의 음색, 조성, 리듬, 테크닉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들 수 있겠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4) 연계-조직 전략 (Articulation-organization strategies)

연계(articulation)는 서로 구분되는 교육내용들 사이에 원활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종적 관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과군 사이의 횡적 관련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조직(organization)은 학습내용들 사이의 일반적인 요소들을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고, 복잡한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계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Weinstein & Mayer, 1986). 다시 말하자면, 조직 전략은 정보를 다른 형태로 전이하는 것에 연관되고 부분 사이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Cornford, 2002).

음악실기 학습과 연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계-조직 전략의 예로는 음악의 추상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시각적인 이미지로 마음속에 떠올려보거나 혹은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5) 이해 점검 전략(Comprehension monitoring strategies)

이해 점검(comprehension monitoring)은 “읽기에 있어서 중요한 초인지 기능으로서 이해과정에 대한 평가와 조절을 의미”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이는 읽기를 하고 있는 동안 독자가 자신의 이해과정에 대해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교정을 하면서 이해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와인스타인과 메이어(1986)는 이해 점검 전략이 학습활동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해야 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목표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음악실기 학습과 연습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 점검 전략의 예로는 선택한 곡이 자신의 테크닉과 음악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곡에 적합한 연습 방법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들 수 있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피아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부산·경남 지역 대학 중 3군데를 선정하고 각 대학 1, 2, 3, 4학년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 132명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연습태도와 연습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총 응답한 132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9부를 제외한 123부의 설문지를 이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학생들의 연습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코스트카(2002)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1) 이제까지 받은 피아노 레슨기간; 2) 1주일간의 총 연습시간; 3) 테크닉, 음악성, 초견능력, 음색, 암보기술 중 각자가 생각하는 연습에서의 중요도 순위; 4) 연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 5) 연습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활동; 6) 일정한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의 유무; 7)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 8)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피아노 연습 시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가 개발한 ‘악기연습 시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피아노 전공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설문 문항은 ‘악기 연습할 때’에서 ‘피아노 연습할 때’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9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¹⁾를 사용하였으며, 주의 전략(attention strategies) 범주 7문항, 시연 전략(rehearsal strategies) 범주 5문항, 정교화(elaboration strategies) 범주 6문항, 연계-조직 전략(articulation-organization strategies) 범주 7문항, 이해점검 전략(comprehension monitoring strategies) 범주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 요인 적재 값은 0.513에서 0.813 사이이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주의 전략 범주에서 0.89, 리허설 전략 범주에서 0.81, 정교화 전략 범주에서 0.85, 연계-조직

1) 1점: 안함, 2점: 조금, 3점: 가끔, 4점: 자주, 5점: 항상

전략 범주에서 0.87, 이해 점검 전략 범주에서 0.93이다(Uygun and Kılınçer, 2017).

3. 자료분석

자료분석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레슨 받은 기간, 1주일간의 총 연습시간, 일정한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의 유무,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에 대해 빈도분석하고, 테크닉, 음악성, 초견능력, 음색, 암보기술 중 학생 각자가 생각하는 연습에서의 중요도 순위와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연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과 연습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활동을 분류하고 명목화하여 빈도분석하였다. 셋째,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의 ‘악기연습 시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 척도’에 대한 응답을 5개의 범주별로 나누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하였다. 넷째, 레슨 받은 기간, 연습시간, 그리고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따라 연습전략 척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 유무와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에 따라 연습전략 척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v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생들의 연습태도

총 1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의 총 연습시간, 피아노 레슨 시작 후 2018년 4월까지 받은 레슨기간, 일정한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의 유무,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레슨 받은 기간은 5년~10년 미만이 58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이 10명(8.1%)로 가장 적었다. 학생들의 1주일간의 총 연습시간은 평균 16.13시간으로 10시간이상 20시간 미만으로 연습하는 학생이 52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한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을 가지고 연습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빈도는 64(52%)와 59(48%)로 거의 비슷하였고,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78명(63.4%)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표 1> 레슨기간, 연습시간, 연습계획 유무, 지도교수와의 연습논의 유무

구분	빈도(n)	퍼센트(%)	
레슨 받은 기간	5년 미만	31	25.2
	5년~10년 미만	58	47.2
	10년~15년 미만	24	19.5
	15년 이상	10	8.1
1주일간의 총 연습시간	10시간미만	31	25.2
	10시간~20시간미만	52	42.3
	20시간~30시간미만	27	22.0
	30시간이상	13	10.6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 유무	있다	64	52
	없다	59	48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	있다	78	63.4
	없다	45	39.6

테크닉, 음악성, 초견능력, 음색, 암보기술 중 학생들 각자가 생각하는 연습에서의 중요도를 순위로 매기도록 한 후 이를 합산하여 순위평가를 내어 보았다. 분석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습에서 익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1순위는 순위평균 1.94로 ‘음악성’이었다. 2순위는 순위평균 2.28로 ‘테크닉’이었고, 3순위는 순위평균 2.90으로 ‘음색’이었다. ‘초견능력’과 ‘암보기술’은 순위평균 3.76, 4.09로 4위와 5위로 기록되었다(<표 2> 참조).

<표 2> 학생들이 연습에서의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 순위

구분	순위	빈도(n)	퍼센트(%)	순위평균	최종순위
테크닉	1	31	25.2	2.28	2
	2	35	28.5		
	3	49	39.8		
	4	8	6.5		
	5	0	0		
음악성	1	49	39.8	1.94	1
	2	38	30.9		
	3	31	25.2		
	4	5	4.1		
	5	0	0		
조건능력	1	17	13.8	3.76	4
	2	12	9.8		
	3	6	4.9		
	4	36	29.3		
	5	52	42.3		
음색	1	21	17.1	2.90	3
	2	25	20.3		
	3	34	27.6		
	4	31	25.2		
	5	12	9.8		
암보기술	1	5	4.1	4.09	5
	2	13	10.6		
	3	5	4.1		
	4	43	35.0		
	5	57	46.3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습시간 동안 연주곡 연습(n=83, 40.7%)과 테크닉 연습(n=65, 31.9%)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성연습(n=15, 7.4%)에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는 연주곡 연습과 테크닉 연습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학생들이 연습시간에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조건(n=44, 35.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위명업(n=30, 24.2%)이었으며, 암보, 테크닉, 음악 감상을 응답한 학생도 다수 있었다(<표 3> 참조).

<표 3> 학생들이 연습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활동(복수응답가능)

연습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연습 활동	n	%
연주곡 연습	83	40.7
테크닉	65	31.9
음악성	15	7.4
음색	10	4.9
암보	10	4.9
기타	21	10.2
연습시간에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연습 활동	n	%
초견	44	35.5
위명업	30	24.2
암보	15	12.1
테크닉	13	10.5
음악감상	9	7.3
기타	13	10.4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을 선택하라고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습을 ‘지루하지만 필요한 것’으로(56.9%)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편안하다’(18.7%)와 ‘만족스럽다’(20.3%) 느끼는 학생들도 전체 중 3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연습을 도전적이고(1.6%) 즐겁다고(3.3%)고 느끼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생들의 연습에 대한 인식

인식	빈도(n)	퍼센트(%)
지루하지만 필요한	70	56.9
도전적인	2	1.6
편안한	23	18.7
만족스러운	25	20.3
즐거움	4	3.3

2.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전략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의 ‘악기연습 시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 척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빈도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평균 3.47로 시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평균 3.42, 3.41로 연계-조직 전략과 이해 점검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전략도 평균 3.21로 ‘가끔’보다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5개 범주 중 정교화 전략이 평균 2.87로 가장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전략

전략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1)	최대값(5)
주의	123	3.21	0.82	1.29	4.71
시연	123	3.47	0.60	1.60	5.00
정교화	123	2.87	0.75	1.17	4.67
연계-조직	123	3.42	0.73	2.00	5.71
이해 점검	123	3.41	0.60	1.43	4.64

3. 레슨 받은 기간, 연습시간, 연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연습전략의 차이

레슨 받은 기간, 연습시간, 그리고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따라 연습전략 척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아노 레슨 받은 기간과 5개 영역의 연습전략과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연 전략, 연계-조직 전략, 이해점검 전략에서는 레슨 받은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의 전략과 정교화 전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1$, $p < .05$), 주의 전략은 15년 이상 레슨을 받은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반면, 정교화 전략은 레슨 받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6> 레슨기간에 따른 학생들의 연습전략 차이

전략	레슨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
주의	5년 미만	31	3.19	.77	4.001	.009
	5년~10년 미만	58	3.11	.80		
	10년~15년 미만	24	3.66	.89		
	15년 이상	10	2.74	.48		
시연	5년 미만	31	3.43	.49	.102	.959
	5년~10년 미만	58	3.50	.68		
	10년~15년 미만	24	3.45	.64		
	15년 이상	10	3.50	.38		
정교화	5년 미만	31	2.76	.54	2.872	.039
	5년~10년 미만	58	2.80	.75		
	10년~15년 미만	24	2.91	.81		
	15년 이상	10	3.50	.96		
연계-조직	5년 미만	31	3.39	.77	1.158	.329
	5년~10년 미만	58	3.33	.69		
	10년~15년 미만	24	3.66	.82		
	15년 이상	10	3.46	.53		
이해 점검	5년 미만	31	3.40	.41	.499	.683
	5년~10년 미만	58	3.46	.62		
	10년~15년 미만	24	3.39	.73		
	15년 이상	10	3.21	.63		

1주간의 총 연습시간에 따른 5개 범주의 연습전략 평균 점수는 <표 7>과 같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개 모든 범주에서 연습시간에 따라 연습전략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연습시간이 10시간 미만인 학생들과 연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각 영역의 연습전략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평균 0.86점 차이로(주의 0.96, 시연 0.92, 정교화 1.04, 연계-조직, 0.61, 이해 점검 0.77) 연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이 10시간 미만인 학생들보다 모든 범주의 연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범주의 연습전략 점수가 3.50이상인 결과를 살펴봐도 주 20시간 이상을 연습시간에 할애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습시간에 따른 학생들의 연습전략 차이

전략	연습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	P
주의	10시간미만	31	2.80	0.75	5.173	.002
	10시간~20시간미만	52	3.32	0.71		
	20시간~30시간미만	27	3.18	0.96		
	30시간이상	13	3.76	0.60		
시연	10시간미만	31	3.13	0.61	11.767	.000
	10시간~20시간미만	52	3.40	0.47		
	20시간~30시간미만	27	3.74	0.53		
	30시간이상	13	4.05	0.62		
정교화	10시간미만	31	2.41	0.56	10.871	.000
	10시간~20시간미만	52	3.11	0.71		
	20시간~30시간미만	27	2.66	0.65		
	30시간이상	13	3.45	0.84		
연계-조 직	10시간미만	31	2.92	0.45	9.078	.000
	10시간~20시간미만	52	3.70	0.62		
	20시간~30시간미만	27	3.42	0.73		
	30시간이상	13	3.53	1.05		
이해 점검	10시간미만	31	3.06	0.74	8.554	.000
	10시간~20시간미만	52	3.38	0.51		
	20시간~30시간미만	27	3.66	0.33		
	30시간이상	13	3.83	0.55		

피아노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따른 각 범주의 연습전략 척도 평균 점수는 <표 8>과 같다. 5개의 모든 범주에서 연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연습 전략 평균 점수가 유의수준 .01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범주에서 연습을 ‘만족스러운’으로 인식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연습을 ‘도전적인’으로 인식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평균점수는 가장 낮았다. 또한 연습을 ‘지루하지만 필요한’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3.50을 넘지 못하였다.

<표 8> 연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연습 전략 차이

전략	연습에 대한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주의	지루하지만 필요한	70	3.20	0.74	4.213	.003
	도전적인	2	3.22	0.11		
	편안한	23	2.73	0.95		
	만족스러운	25	3.66	0.59		
	즐거운	4	3.22	1.56		
시연	지루하지만 필요한	70	3.33	0.52	6.358	.000
	도전적인	2	2.50	0.14		
	편안한	23	3.54	0.41		
	만족스러운	25	3.90	0.78		
	즐거운	4	3.40	0.23		
정교화	지루하지만 필요한	70	2.57	0.61	9.745	.000
	도전적인	2	2.50	0.24		
	편안한	23	3.24	0.54		
	만족스러운	25	3.41	0.92		
	즐거운	4	2.75	0.29		
연계-조직	지루하지만 필요한	70	3.21	0.61	4.551	.002
	도전적인	2	3.00	0.00		
	편안한	23	3.60	0.82		
	만족스러운	25	3.81	0.76		
	즐거운	4	3.86	0.83		
이해 점검	지루하지만 필요한	70	3.23	0.62	9.337	.000
	도전적인	2	2.68	0.55		
	편안한	23	3.44	0.24		
	만족스러운	25	3.94	0.48		
	즐거운	4	3.43	0.16		

4. 연습계획 유무와 지도교수와의 논의 유무에 따른 연습전략 차이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 유무에 따라 연습전략 척도 각 범주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주의 전략, 시연 전략, 정교화 전략, 연계-조직 전략의 평균 점수는 연습계획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해 점검 전략은 연습계획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연습계획이나 연습루틴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이해 점검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연습계획 유무에 따른 연습전략 차이

전략	연습계획	N	평균	표준편차	t	P
주의	있다	64	3.22	.79	.265	.34
	없다	59	3.18	.86		
시연	있다	64	3.69	.64	4.546	.19
	없다	59	3.23	.46		
정교화	있다	64	2.77	.82	-1.566	.19
	없다	59	2.98	.66		
연계-조직	있다	64	3.56	.77	2.066	.33
	없다	59	3.28	.66		
이해 점검	있다	64	3.62	.64	4.339	.04
	없다	59	3.18	.45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가의 유무에 따른 각 범주의 연습전략 척도 점수 차이 역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연습전략 범주에서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사이 연습전략 평균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지도교수와 논의 유무에 따른 연습전략 차이

전략	교사와의 논의	N	평균	표준편차	t	P
주의	한다	78	3.14	.86	-1.094	.18
	안한다	45	3.31	.74		
시연	한다	78	3.52	.65	1.083	.07
	안한다	45	3.40	.51		
정교화	한다	78	2.82	.74	-.914	.41
	안한다	45	2.95	.77		
연계-조직	한다	78	3.49	.77	1.297	.21
	안한다	45	3.31	.63		
이해 점검	한다	78	3.47	.60	1.382	.997
	안한다	45	3.31	.58		

V. 논의

이 연구는 코스트카(Kostka, 2002)와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의 연습태도와 연습 전략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3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피아노 전공 대학생 123명으로 이들이 응답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1주일간의 총 연습시간은 평균 16.13시간으로 10시간이상에서 20시간미만으로 연습하는 학생이 52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연습 시간과 연습의 효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1일 4시간을 넘어가는 연습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며(Sloboda, et. al., 1996), 성인 전문가가 매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연습 시간은 4-5시간이라고 한다(Ericsson et al., 2007).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10시간 이상에서 30시간미만으로 연습하는 학생은 전체의 64.3%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1일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적절한 연습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정한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을 가지고 연습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빈도는 64(52%)와 59(48%)로 거의 비슷하였고,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78명(63.4%)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코스트카(2002)의 연구에서도 이 연구와 비슷한 수치인 55%의 학생들이 연습루틴을 가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코스트카(2002)의 연구에서 67%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63.4%가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응답하여 이와 대조를 보인다.

연습계획이나 연습루틴 유무는 연습전략 척도 중 이해 점검 전략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쳤으며, 연습계획이나 연습루틴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이해 점검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스타인과 메이어(1986)는 이해 점검 전략이 학습활동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해야 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목표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는 모든 범주에서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연습에서 익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응답한 1순위는 ‘음악성’이었고, 2순위는 ‘테크닉’이었으며, 3순위는 ‘음색’이었다. ‘조건 능력’과 ‘암보기술’은 4순위와 5순위로 음악성, 테크닉, 음색보다 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습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건능력은

넷째, 위군과 킬루니세르(2017)의 ‘악기연습 시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습전략 척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빈도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평균 3.47로 시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평균 3.42, 3.41로 연계-조직 전략과 이해 점진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전략도 평균 3.21로 ‘가끔’보다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5개 영역의 전략 중 정교화 전략이 평균 2.87로 가장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화 전략은 기존의 정보 혹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음악실기 학습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곡의 음색, 조성, 리듬, 테크닉과 새로운 곡의 음색, 조성, 리듬, 테크닉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곡을 학습하는 전략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교화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Conford, 2002), 학생들이 이러한 연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n=70$, 56.9%)은 연습을 ‘지루하지만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습을 ‘편안’하고($n=23$, 18.7%) ‘만족스러운’($n=25$, 20.3%) 것으로 느끼는 학생들도 전체 중 39%를 차지하였는데, 학생들이 연습을 어떻게 느끼는 가는 모든 범주에서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연습을 ‘만족스러운’으로 인식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가 대부분의 범주에서 가장 높았고, 연습을 ‘도전적인’으로 인식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연습을 ‘지루하지만 필요한’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는 2.57에서 3.23사이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연습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양한 연습전략의 사용이 연습을 ‘지루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인지, 연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다양한 연습전략을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5개의 연습전략 범주 중 피아노 레슨 받은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범주는 주의 전략과 정교화 전략이었다($p<.01$, $p<.05$). 주의 전략은 레슨

받은 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사용하는 반면, 정교화 전략은 레슨 받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슨 받은 기간이 길수록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학습 자료에 표시하는 것과 같은 주의 전략을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악보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다소 소홀해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학습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전문 연주가들도 악보에 메모를 하면서 연습한다(Duke et al, 2009)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주의 전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연습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레슨 받은 기간이 길수록 정교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레슨 받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에 배웠던 곡과 새로운 곡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용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학습한 곡목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이러한 정교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일곱째, 1주간의 총 연습시간은 5개 모든 범주의 연습전략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습시간이 10시간 미만인 학생들과 연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각 범주의 연습전략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평균 0.86점 차이로, 연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이 10시간 미만인 학생들보다 모든 범주의 연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습시간과 연습전략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연습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연습전략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만드는 것인지, 다양한 연습전략의 사용이 연습시간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VI. 결론

이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132명 중 9명을 제외한 123명의 학생들의 연습전략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리커트 5점 척도²⁾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3.28로 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의, 시연, 정교화, 연계-조직, 이해 점검 전략을 ‘가끔’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습전체나 어려운 부분, 혹은 실수

2) 1점: 안함, 2점: 조금, 3점: 가끔, 4점: 자주, 5점: 항상

가 이루어진 부분을 쉽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시연 전략($m=3.47$)을 ‘자주’에 가깝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전에 배웠던 곡의 음색, 조성, 리듬, 테크닉과 새로운 곡의 음색, 조성, 리듬, 테크닉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곡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정교화 전략($m=2.87$)을 ‘가끔’보다 적게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을 시각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연계-조직 전략($m=3.42$)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해 점검 전략($m=3.41$), 그리고 학습해야 할 내용을 악보에 표시하는 주의 전략($m=3.21$)도 3.5이하로 ‘가끔’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반복 학습하는 시연 전략($m=3.47$)외의 다른 연습전략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 중 연습계획 혹은 연습루틴을 가지고 연습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52%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8%로 절반정도 학생들이 연습계획 없이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와의 연습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3.4%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 절반정도가 연습계획 없이 연습하고, 시연 전략 외의 다른 연습전략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습전략에 대한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도교수와 연습전략에 대한 논의 유무가 모든 범주의 연습전략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연습전략에 대한 지도교수와의 논의가 학생들의 연습전략 사용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연습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고, 다양한 연습전략의 사용은 연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연습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고, 다양한 연습전략의 사용은 연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도 학생들의 연습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학생들이 최상의 연습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연습에 대해 ‘만족스러운’으로 인식한 학생들의 연습전략 점수가 대부분의 범주에서 가장 높았고, 연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이 10시간 미만인 학생들보다 모든 범주의 연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연습전략의 사용이 보다 긴 시간 동안 보다 만족스럽게 연습하도록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도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학습할 내용을

전달하기에만 치중하기보다 학습과정, 즉 연습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고 학생들에게 시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배수영 (2016). 대학 피아노 전공 실기 지도교수들의 연습전략 지도방법 연구. **음악교육연구**, 45(4), 93-113.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동우설.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Ali, S. (2010). Understanding our students' self-regulation during practice: Verbal protocol as a tool. *Journal of Singing*, 66(5), 529 - 536.
- Barry, N. (2007). A qualitative study of applied music lessons and subsequent student practice sessions.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34, 51-65.
- Barry, N. H. (1992). The effect of practice strateg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gnitive style, and gender upon technical accuracy and musicality of student instrumental performance. *Psychology of music*, 20, 112-123.
- Bathgate, M., Sims-Knight, J., & Schunn, C. (2012). Thoughts on thinking: Engaging novice music Students in metacogni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6(3), 403 - 409.
- Cornford, I. R. (2002). Learning-to-learn strategies as a basis for effective lifelong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4), 357-368.
- DeNicola, D. N. (1990).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twelve-step sequential method to teach class piano sightread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uthern Division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Winston-Salem, N. C.
- Duke, R. A., Simmons, A. L. & Cash, C. D. (2009). It's not how much: It's how characteristics or practice behavior and retention of performance skill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6(4), 310-321.
- Ericsson, K. A., Prietula, M. J., & Cokely, E. (2007). The making of an expert. *Harvard Business Review*, 85(7-8), 115-121.
- Hewitt, M. P. (2001). The effect of modeling, self-evaluation, and self-listening on junior high instrumentalists' music performance and practice attitud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4), 307-322.
- Jones, S. (2002). *Maximize your students' learning with practical, brain-based*

- strategies(Grades K-8)*. Medina, WA: Institut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Kostka, M. J. (2002). Practice Expectations and attitudes: A survey of college-level music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2), 145-154.
- Locke, E. A. & Bryan, J. F. (1965). The effect of performance goals on level of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 286-291.
- Matlin, M. W. (1989). *Cogn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Milkaszewski, K. (1989). A case study of a pianist preparing a musical performance. *Psychology of Music*, 17, 95-109.
- Pintrich, P. R.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4), 385-407.
- Sloboda, J. A., Davidson, J. W., Howe, M. J. A., & Moore, D. G. (1996). The role of practice in the development of performing musicia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7, 287-309.
- Uygun, M. A. & Kılınçer, Ö. (2017). Developing a scale for strategies used during the practice and learning of instrumental music.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2(8), 518-530.
- Weinstein, C. E. & Mayer, R. E. (1986). The teaching of learning strategies.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 315-327). New York: Macmillan Company.
- Wernke, S., Wagener, U., Anschuetz, A., & Moschner, B. (2011). Assessing cognitive and meta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in school children: Construct validity and arising ques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Review*, 6(2), 19-39.

ABSTRACT

**Strategies Used by College Applied Piano
Majors during the Practice and Learning of
Piano Music**

Bae, Su-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actice attitude and the strategies college applied piano major students use during the practice and learning of piano music using 'Scale for Strategies Used during the Practice and Learning of Instrumental Music(Uygun and Kılınçer, 2017)' and the revised survey of Kostka(2002). The study group comprised of 123 college applied piano major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Gyeongnam area.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tudents regard 'musicality' and 'technique' as the most important skills to learn in practice. Second, students' levels of rehearsal strategies($m=3.47$) were the highest and the levels of elaboration strategies($m=2.87$) were the lowest. Third, students' levels of using strategies in all fiv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practice duration and how they feel about practice. Furthermore, students' levels of using comprehension monitoring strateg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whether they follow a specific practice routine, and students' levels of using attention strategies and elaboration strateg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lesson experience.

Key words: practice strategies, piano pedagogy, music education

투고일: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9일(7월 20일), 게재확정일: 7월 29일